

4~5» 길게 읽기 - 장애학생 학습권



8» 과잠, 왜 입니?



201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개설과목 확인 : 11월 2일(월)
수강신청기간 : 12월 14일(월) 10:30~12월 15일(화) 17:00
등록금 납부기간 : 12월 16일(수)~12월 18일(금) 16:00
수업기간 : 2015년 12월 16일(수)~2016년 1월 14일(목)

교육여건 23위, 주요 대학과 격차 더 커져 강의규모·전임교원 강의비율·세입 중 납입금 비중 40위 밖

해설 -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

김윤철 기자 kycxellos@khu.ac.kr
고상아 기자 ddang_ah@khu.ac.kr

‘2015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를 두고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포스텍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가 계열별 평가로 제외됐음에도 종합순위가 두 계단 떨어진 것은 물론 서울시립대와 ‘분교’로 인식되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그리고 그간 분리평가를 받아온 중앙대학교가 서울과 안성캠퍼스를 통합해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들 대학에 밀리는 성적표를 받아들었기에 ‘당혹감’은 이유 있는 반응이다.

대학은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대학평가 결과가 발표된 직후 긴급 교무위원회가 열리는가 하면 지난달 27일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교무위원회에서도 평가결과는 회의시간 내내 주된 의제였다는 것이 참석자의 전언이다. 이날 교무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대응하는 방안도 거론된 듯하다. 4개 부문별 지표 점수의 개선을 통해 종합대학 5위권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대강의 계획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신문은 이번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가 함의하는 것을 살펴본다. 이미 수년 전부터 언론사의 대학평가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학평가’ 그 자체가 현존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영향도 적지 않기에 결과를 통해 드러난 우리대학의 현실을 살펴보는 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앙일보는 이번 대학평가부터 재원 투자를 통해 지표 점수를 올리기 쉽다고 지적돼오던 ‘국제화’ 부문을 축소·폐지하고 ‘학생교육

노력 및 성과’ 부문으로 변경했다. 또한 질적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역시 새로 도입했다. 교육여건 부문에서는 강의규모·기숙사수용률 등을 새로 도입해 학생들이 직접 체감하는 지표를 추가했고, 계열 간 교수업적을 동일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문사회계열을 분리 평가하기 시작했다. 우리학교는 부문별로 교육여건 23위, 교수연구 9위, 평판도 10위, 학생교육 노력 및 성과 15위를 기록했다.

교육여건 지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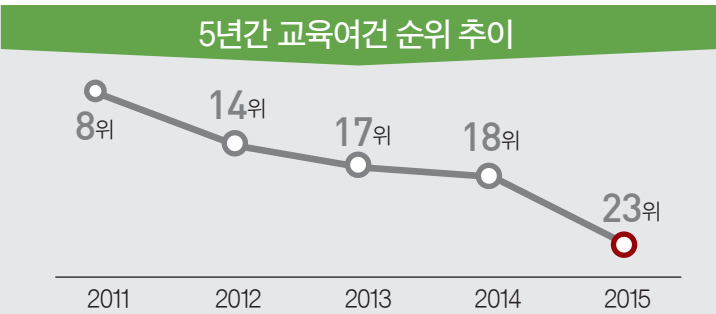
가장 큰 ‘고민’거리

교육여건의 경우 지난 2007년 이후 최하위인 23위를 기록한 것이 가장 눈길에 간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부문과 지표가 변화되면서 교육여건은 지난해 부문 배점 90점(30.0%)에서 올해 150점(37.5%, 종합점수는 2014년 300점 → 2015 400점으로 변경)으로 확대돼 교수연구 27.5%, 평판도 15.0%, 교육노력 및 성과 20.0%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부문에서 취약한 우리대학으로서의 종합 순위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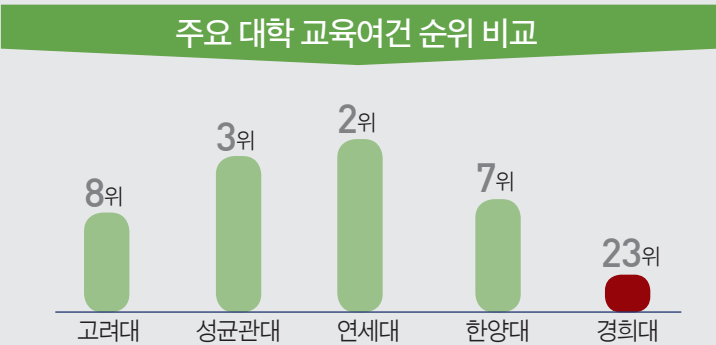
교육여건은 이미 구성원으로부터 ‘내실’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아 왔던 부문이기도 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구성원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외부 평가 역시 교육 환경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그동안 교수 연구 역량 강화에 집중되어왔다는 평을 받고 있는 대학의 정책 역시 전환의 계기가 필요해 보인다.

▶6면으로 이어짐

하나의 경희로 가는길② 입학으로 본 경희 - 3면



교육여건 상세지표 현황			
세부지표	점수(배점)	상세지표	순위
교수학보율	15.1(20)	93.07%	11위
기숙사 수용률	5.8(10)	19.66%	27위
학생당 도서관구입비	2.8(5)	13만 9천원	21위
세입 중 납입금 비중	5.3(15)	57.29%	40위 밖
세입 중 기부금	2.7(5)	3.22%	13위
외국인 교수 비율	5.3(10)	10%	32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10.8(20)	20.86%	26위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	5.5(15)	187.12%	36위
강의규모	0.3(10)	0.29점	40위 밖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0.3(5)	0.49%	40위 밖
외부 경력 교원 비율	0.6(5)	25.55점	40위 밖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6.5(8)	8.37%	5위
외국인 학생의 다양성	3.7(7)	1.598점	34위
교한 학생 비율	9.2(15)	7.11%	13위



주요 대학 전임교원 연간 책임시수 비교		
경희대 12시간	성균관대 - 15시간 학부 9시간 의무강의, 학기 3시간 의무강의	
고려대 12시간	한양대 - 15시간 학부 1강좌 의무강의, 주당 6시간 의무강의	
서울대 18시간	연세대 12시간	중앙대 12~15시간

▶7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국정교과서 집필거부 성명 발표한
박윤재 사학과 학과장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

이승연 기자 leesyo177@khu.ac.kr

#.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검정교과서 체제로 편찬되고 있는 기존의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2017학년도부터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학교 사학과 교수 전원은 지난달 14일 성명서를 통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이라고 비판하며 국정교과서 ‘집필거부’를 선언했다. 성명에 참여한 우리학교 사학과 박윤재 학과장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국정교과서 ‘집필거부’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와 집필거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A. 지난달 5일 이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경희대학교 교수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학내 반대 여론 확산/대학주보 온라인 2015.10.13> 그 성명서의 연장선에서 국정교과서 집필거부 선언을 한 것이다. ‘집필거부’란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제작에 참여를 요청할 경우 그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Q. 성명서에서 ‘사실에 기초한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향하는 연구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체제 하에선 이러한 연구를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A. 현재 검인정 교과서에 비해, 편찬 주체가 교육부인 국정교과서는 상대적으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나 창의성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Q. 학계가 ‘그러한’ 우려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교육부가 발간 주체라는 점, 나아가 단 한 권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획일적인 역사관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은 국정교과서에 나온

서술을 정답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역사란 사실과 해석 사이의 대화 혹은 긴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정교과서란 그 대화 혹은 긴장의 여지를 축소시킨다. 궁극적으로 역사를 ‘왜소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Q.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검정교과서 좌편향을 지적하며 색깔론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A. 검정교과서란 교육부가 제시한 검정기준을 통과한 교과서다. 현재 국사교과서는 지난 2013년에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것이다. 즉,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이다. 자신들이 인정한 교과서를 이제와서 좌편향이라 비판한다면, 자가당착이다. 그럼에도 새롭게 국정교과서를 편찬하겠다는 이유는 기존 교과서의 편향성을 빌미로 자신들이 원하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Q.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교과서 시행 의지를 비쳤다. 향후 국정교과서의 행방을 어떻게 보고 있나?

A. 12월 2일 국정교과서 시행이 결정될 것 같다. 학계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나의 대안으로 시민교과서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 학계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면, 우리학교 역사 학자분들이 참여하는 형식이 될 것 같다. 현 시점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선 계속 고민 중이다.

Q. 국정교과서 도입이 결정된 현 시점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하나의 정답을 외워서는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다. 여러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자신의 시각을 만들어나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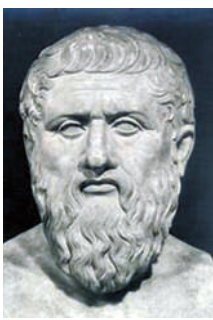
황금률: 정의와 사랑의 원리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⑤

최인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황금률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 말씀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매우 오래 전부터 수많은 종교 및 문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 왔다. 일찍이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남들이 해서 네가 비난할 행동은 너도 하지 마라’고 말했으며, 공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

는 것이 곧 인’이라고 가르쳤다. 또한 불교에는 ‘자신이 상처받을 것 마라’, 이슬람교에는 ‘자기 자신에



플라톤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언제나 좋은 것이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황금률에 의하면, 우리는 남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해주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바라는 바이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소망이 곧 타인에 대한 의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비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 어떤 힘이, 어떤 원리가 나와 타인 사이를 훌쩍 뛰어넘게 하는 것일까?

게 소원하는 바를 형제에게도 소원하기 전까지는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이 있다. 황금률은 시대와 지역, 문화와 종교까지도 모두 초월한 보편적 행동원리인 것이다. 동서고금의 이 모든 황금률들은 단 한가지 공통된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라는 것 혹은 바라지 않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같은 것이라는 지혜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남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플라톤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언제나 좋은 것이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황금률에 의하면, 우리는 남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해주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바라는 바이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소망이 곧 타인에 대한 의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비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 어떤 힘이, 어떤 원리가 나와 타인 사이를 훌쩍 뛰어넘게 하는 것일까?

▶7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특별기고

역사, 살아 숨쉬는 생생한 현재 진행형 학문

서상훈 (문화평론가) >>7면

